

##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

내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 승인  
우원식 의장 예결위 명단 요청  
법사위원장 배분·선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에 관한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 뒤에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가 열린다.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전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5곳) 배분 및 선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요청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현행처럼 민주당이 맡아야 하느냐,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느냐는 문제로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기업 유치 지역경제 '훈풍'

9개 기업 추가 투자 유치  
773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560명 일자리 창출 예정

전주탄소국가산단입지에 9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어서 기업입주 및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7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참여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익성(대표 이봉진) △선박 조항장치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프리테크 엠아이(대표 김말래영) △나노소재의 한 축인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 개발·생산 전문기업인 나노솔루션(대표 김형열) △초고온 탄소 내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테크카본(대표 김광수, 신현규) △태양광 발전 분야 특화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성능 수전해 전해질막을 개발하는 에코렘(대표 박인유) △국내외 특허 34건의



전주탄소산단입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이 24일 전주시·전북도·전북연구개발특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인제이엔지(대표 박종우) △소형 전기이중충전센터 조립 장비의 국산화 대표기업인 팔복인더스트리(대표 김두용) △액화가스 금속탱크 전문기업인 하이솔(대표 이상용)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탄소국가산단의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773억 원을 투입해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총 226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탄소국가산단

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체결한 세 번째 투자협약으로, 이로써 탄소국가산단 투자기업은 22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22개 기업은 앞으로 총 2,371억 원을 투자해 56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기업들이 입주할 전주탄소국가산단은 도시숲을 포함한 도심에 위치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좋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탄소산단에 대한 분양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 역시 개정하는 등 탄소국가산단의 매력을 적극 어필해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산단입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안전성 강화, 물류비 절감, 인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 전북도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주도

이해성 전주대 명예교수  
'퀀텀코리아 2025'서 정부 표창  
전북 미래양자산업 중심지 성장

전북이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5' 개막식에서 이해성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북자치도의 추천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국내 최초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EC/ISO)의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3) 초대 의장을 맡아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퀀텀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과

학기술 국제행사로, 올해는 '100 Years of Quantum, Awakening Industry'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 시상식, 기조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해성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주대 신소재화학공학과에서 18년간 재직했으며, 2024년 2월 정년 퇴임 후에도 양자·탄소·나노 분야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전북지역 양자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해성 명예교수는 "국가기술 주권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으로 전북을 미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5월 전북 수출, 전년비 4.6% 감소 5억 1,639만 달러

전북무역협회 수출보고서  
17개 지자체 중 0.90% 13위  
대미 총수출 4~5월 연속 하락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5억 1,639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4억 7,237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403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3억 달러)에서 0.90% 비중을 차지하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5월 도내 수출기업 수(해당 월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수)는 3월보다는 높지만 4월보다는 소폭 하락한 793개사였다.

5월 전북특별자치도 5대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4,595만, 101.2%), 농약약품(\$4,421만, -40.7%), 동제품(\$4,182만, 60.2%), 자동차(\$3,988만, -3.6%), 합성수지(\$3,455만, -14.1%)를 기록했다.

정밀화학원료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세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2025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북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농약약품은 베트남·인도·브라질 등지로 농약 수출이 감소했다. 네덜란드·독일로의 약품 수출도 감소하며 2위로 하락했다. 아직 미국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인 동제품은 60%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3위를 기록했다.

권역별 수출은 아시아·유럽·중동 권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9,652만, -10.2%), 중국(9,381만, 14.9%), 베트남(\$3,635만, -9.9%), 일본(\$3,433만, 18.8%), UAE(\$1,741만,

106.7%) 순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전북 수출상대국 1위 국가이지만 전북의 대미 총수출은 3월 정점을 찍고 4~5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미수출 품목별로 미 관세부와 정책의 주요 대상품목이었던 농기계(HS 기준 자동차로 분류), 철강관·철강선,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등 품목의 4월 이후 수출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가 많은 정밀화학원료와 현재 관세부와 대상이 아닌 동제품은 대미수출이 5월 들어서도 증가했다.

/김영태 기자

GO MUJU

쏟아지는 햇살 아래  
푸르른 숲바람  
새하얀 물보라  
마음을 씻기는 여름

가자, 우주로!  
시원한  
자연특별시 우주의 여름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

# 조국혁신당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진척 없어”

### 설립발표후제자리걸음 정부 A3대강국울산첫선택 李大통령,전북패싱안된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4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울산 선언과 관련, 새만금의 SK 데이터센터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첫 국내 행선지로 울산을 선택한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SK와 AWS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100MW급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규제 혁신과 세계 지원을 약속한 장면은 새 정부가 AI를 축으로 한 산업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신호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조국혁신당은 “전북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계획은 단순한 투자 유치기 아니라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데이터 산업을 결합해 전북을 ‘에너지·AI-데이터 클러스터’로 도약시키는 핵심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만금정, 전북도,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송전망 구축이 지연되고, SK가 제안한 에너지 직송형 PPA(전력 구매계약)와 같은 제도 개선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AI 산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새만금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4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를 단순한 기업 투자 차원의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면서 “지금 전북이 겪고 있는 상황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본래 목적을 되묻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지 HVDC(고압 직류 송전) 등 한전의 송·변전망을 확장해 수도권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만 집중된다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

새만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 위해 'RE100 + AI + 데이터센터' 자금형 전력 인프라 모델을 채택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송출용으로만 활용하는 기존 구조를 탈피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전력 생태계'를 구축 △산업부와 새만금정, 전북도, 정치권이 협력해 SK와의 초기 협약을 복원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실행력을 강화 등 3개안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AI 고속도로'와 'AI 대전환'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며 “그렇다면 그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전북에서 먼저 그리고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 김 지사, 도민과 전북 미래 비전 공유

### 민선8기 3주년 기념 대화 7월 3~4일 녹화 방송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3주년 기념 대화 '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도민 200여 명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김 지사는 24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3년의 도정을 돌아보며 전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 도민들이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했다.

행사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민생경제', '첨단산업', '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도민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출범 이후 큰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전북의 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경제 회복,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주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전북자치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도민과의 대화' 녹화된 방송은 7월 3일 MBC(오후 5시 45분), JT(오후 6시 40분), 7월 4일 KBS(오후 7시 20분)에서 각각 1시간 분량으로 방영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광역교통 여건수요 분석 등 지역 연계 교통망 체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전북의 핵심 광역교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대광법 개정 이후 지방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후속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추진되며, 국토연구원이 수행을 맡아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광역도로망, 광역철도, 환승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해 지역 연계 교통망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전주권 광역교통 여건 및 수요 분석 △광역교통시설 신규사업 발굴 △사업별 타당성 분석 △중장기 전략 및 국가계획 반영 논리 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광역교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등과의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도 병행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북도는 대도시 중심으로 기획되는 광역교통정책을 지방권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망을 국가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연구는 전북 교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지역 간 교통 연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북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 반영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김슬지 도의원,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 세무 행정 무료 상담 제공 주민 간 가교 역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다.

이로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김슬지 도의원

## 윤준병 의원, '교통기본법안'대표 발의

### “교통권 확보법체계 재정립 시대적 과제로 인식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이동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교통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교

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한다. 각 법률들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 또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거나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들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집중, 지역소멸 위기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 아닌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해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개별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을 통해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명문화하고,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 보장·교통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용욱·김영태 기자

## 김만기 도의원, 수산자원 조성·관리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전북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 고유의 수산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의 분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김정기 도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상임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후테크(Climate Tech)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 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테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새롭게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발표한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테크 센터 설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영태 기자

【▲ 본사 사령】

편집국장 정재근 의원면직(2025년 6월 25일)



# 전북경찰 '노쇼 사기' 잇따라대응책 고심

## 사칭 범죄기승 전략회의 "자영업자상대 대리구매 대리결제 100%노쇼"주의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군부대 등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No show) 사기' 범죄가 기승하고 있어 다양한 대책을 세우며 논의했다. '노쇼'란 손님이 가장 허위 예약이나 주문을 하고, 대리 구매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행위이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24일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급년 한 해에만 도내에서 벌써 약190여건의 피해신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식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가장 많았고 유통업,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기관 직인 등이 들어간 허위 공문서나, 허위 명함·직일증, 허위 고유 번호증까지 만들어 사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최근 구축된 도내 14개 시군 유관·협력단체와의 업무 네트워크 통해 노쇼 사기 범죄에 대해

적극 알리고, 또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조합·이동장 등을 상대로 노쇼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긴밀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를 활용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집중 예방을 실시한다. 노쇼 범인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5천만원 이상 사기 피해 발생 시 전북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사건을 이관받아 피싱 전담팀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민접촉 홍보를 통해 실제로, 지난달 28일 완주에서는 군부대에서 수박을 단체 구매한다며 특

정물품을 대리구매 요청을 해 와 이를 거절해 피해를 막았다. 이달 12일 순창북흥면의 한 식당업주는 단체예약 주문을 받고, 주문자 사무실에 전화를 다시 해보고 거짓 주문임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김철문 청장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리 구매, 대리 결제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체 주문이나 예약은 해당 사무실이나 단체에 반드시 재확인 해달라"며 "갑수목 교묘해지고 대법해지는 사기 범죄 예방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해 더욱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유성엽 별세...이대통령 "동지부고에 애도" 선거운동 중 쓰러져

###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고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말 대선 기간에 전북 진안에서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주 대지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밤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서 영면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성엽 전 국회의원에 대해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고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청에서 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읍시장에 도전해 당선됐고 이후



유성엽 전 의원

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무소속과 국민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돌풍으로 4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채 아인으로 지내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윤석열 당선)의 '대사면령'과 '국민대통합 의지'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도왔고, 이후 제22대 총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고교 동기인 윤준병 현 의원에겐 경선에서 패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올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한 민주당 노인위원장으로 전복은 물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등 현 정부의 출범에도 크게 기여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 전주시, 전동차 운행 안전수칙 준수 홍보

## 한옥마을사업소, 통행 안내지도 교통법홍보문배부

전주시는 24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도 대어를 당부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전주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도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

해 지속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임정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지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음식 나눔 공간 '함께주방 1호점' 조성

## 소외계층 위한 나눔·소통 전역 확대 추진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가면서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는 전주시 노송동에 누구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맛 볼 수 있는 전주지역 첫 번째 '함께주방'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24일 노송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빈, 주민단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 나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전주 함께주방' 사업의 1호점인 노송동 천사마을 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사업 경과보고와 축하행사(떡 케이크 커팅식 등), 2부 노송동 통장협의회에서 마련한 함께 음식 나눔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 등 150여 명에게 중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전주 함께주방'의 출발을 기념했다. 전주 함께주방 1호인 천사마을점은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조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협소하고 설비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가스 및 환기 시설과 주방 설비를 보강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나눔 봉사도 가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리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계승해 소외계층 나눔과 청소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주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을 노송동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도 공유하도록 만들어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함께 주방' 1호점 개소식은 전주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음식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함께 주방 1호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주형 함께 주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주시 전역에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맛보는' 나눔의 공간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 전북대병원-호성전주병원, 연명의료결정 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공공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인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성전주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리위원회 설치가 힘든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호성전주병원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전북대병원 공공윤리위원회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병원 공공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엠마오사람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유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주병원 △효도림요양병원 △정다윤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벤엘요양병원 △석성웰파크요양병원 △호성전주

병원 등 전북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연명의료의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전북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 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의료 영역에 걸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의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연명의료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윤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축산분야 총력

##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133곳 집중 점검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자체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장마철에 대비해 전주시역 저수지와 소류지, 대형관정, 배수장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 133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원활한 배수를 위한 여수토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정상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백석제와 오리제의 제방 보수·보강공사, 칠정제 여수토 공사 등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재해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농업기반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풍수해 행동요령과 농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친절교육

### 악성민원 응대 노하우 습득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24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임용자와 대민 업무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청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김보람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공정 정서를 만드는 대면 응대 및 전화 매너 △악성민

원 응대 매뉴얼 및 노하우 등 친절 봉사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또, 악성민원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윅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악성 민원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습득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원 친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정 받는 스마트한 민원 응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신유정 시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기반 마련



신유정 시의원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조춘, 여의, 혁신동)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유정 의원(조춘,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덕진소방,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음주·복무관리 추진 공무원리 강화 총력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4일 음주 행위와 복무 해이 등 공직기강 이완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직기강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워크숍과 회식 중 음주 사례가 적발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근절, 복무규정 준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배 소방행정과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해이함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기"라며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져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유지하고, 자율적 책임 의식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건전한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대응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내부 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 농촌유학 제도 내실화 '박차'

## 전북농촌유학협의회 공식 출범 유학경비·거주시설 447억 투입 올해까지 농촌유학생 7배 증가

전북자치도가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촌 공동체 실현 정책으로 '농촌유학' 제도 내실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협의회' 위촉 위원 1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24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식 위촉했다.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위원은 도의원, 도교육청, 학계, 활동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2022년 전북자치도, 전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간 협약을 계기로 추진, 민선 8기 대표 교육협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기 27명으로 시작된 농촌유학생은 2025년 1학기 기준 204명으로 늘었고, 도내 10개 시군 28개 학교에서 교육과 농촌 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있다. 농촌유학은 도심 학생들에게 생태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 하는 동시에, 농촌 소규모 학교의 존립을 지원하고, 유학생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며 확장 가능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촌유학 내실화를 위해 총 44억 7,600만 원(도비 9.88억

원, 시군비 34.88억 원)을 투입해 유학경비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족제류형 거주시설 조성, 센터형 유학 지원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유학경비 지원은 유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204명에게 약 4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화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문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의 숨은 군산찾기를 통한 군산 역사알기, 무주의 스키체험, 순창의 승마체험, 완주의 텃밭체험 등이 대표 사례다. 가족제류형 거주시설은 정읍시에 1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순창이 올해 2월에 준공된 이후 진안·임실 등 기존 시군의 유사 시설은 2025년 8월까지 단계적으

로 준공된다. 또 완주 2개소, 임실, 순창의 유학센터 4곳에는 생활지도사 인건비,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센터형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유학생 가족 만족도 제고, 지역 정착 유도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촌유학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교육과 정주, 공동체 회복을 함께 꾀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자생식물 향유,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능 입증

### 농진청·전주대·연세대 연구 코로나바이러스 90% 사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향유'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여러해살이 식물인 향유는 전국 각지에서 자라며 8-9월 꽃 필 때 채취해 말린 뒤 나물(향채)로 먹거나 두통, 발열, 오한, 복통 등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쓴다. 농촌진흥청은 전주대, 연세대와 항바이러스, 항염증 약용식물 선발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향유에 주목했다. 연구진이 향유 추출물을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세포에 처리한 결과 바이러스 단백질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90% 이상 줄어 세포 내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했다. 바이러스에 의해 거칠어진 세포 표면도 감염 전과 같은 상태로 매끄럽게 회복했다. 향유 추출물은 염증을 유발한 세포에서 염증 인자 7종 '산화질소(NO)', 'iNOS', 'PGE2', 'COX-2', 'IL-1β', 'TNF-α', 'IFN-β'의 발현도 억제했다. 특히 향유 주요성분 중 '루테올



린-7-O-글리코사이드'와 '루테인-4'-O-글리코사이드'는 다른 성분보다 효과가 우수했다. 향유의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의 효능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과학적 연구는 시작 단계다. 향유의 새로운 효능을 밝힌 이번 연구는 6월 국제 학술지 2곳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농촌진흥청은 이번 결과를 향유의 코로나바이러스 저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 윤영호 과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우리나라 자생 약용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국내 자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성분과 효능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업기술원, 장마철 논콩 재배관리 철저 당부

## 집중호우 대비 논 가장자리 중앙 배수로 사전 정비 필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논콩 파종이 지연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철저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4-5월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맥류 등 동계작물의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모작으로 재배되는 논콩의 파종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여기에 6월 중순 이후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논이 질이 이랑 작업이 어려워지자 대체 작물로 전환을 고민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다. 전북지역 논콩 파종 한계기는 6월 하순으로, 파종 시기가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수량이 10~30%가량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파종이 늦어질 경우 포기사이를 좁혀 파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콩은 습해에 비교적 약한 작물이다. 파종 후 유묘기에 과습 피해를 입으면 생육이 부진하고 수량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논은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되기 쉬우므로 철저한 배수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논 가장자리에 깊이 50~80cm의 큰 배수로를 마련하고, 중앙부에는 여러 갈래의 작은 배수로를 조성해 신속하게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로 인해 아랫잎이 노랗게 변하고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1% 요소액을 엽면 시비하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북농기술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논콩 파종이 지연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전북농기술원>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은 "파종을 하지 못했거나 침수 피해로 생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상순순까지의 팥, 7월 하순까지는 녹두로 대체 파종이 가능하다"며 "장마 이후 7-8월 병해충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면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 전북 소비자심리지수, 석 달 만에 '회복세'

### 한국은행 전북 6월 동향조사 102.2 급반등...회복 기대 반영

전북지역 2025년 6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2.2로 전월(96.2)보다 6.0p 오름세를 보였다. 주요지수에서 현재생활형편(87→88), 생활형편전망(91→96), 소비자충전감(103→107)은 상승으로 확인됐고 지출향목별로는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등에서 상승했지만 교육비, 의료·보건비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경제상황 인식으로는 현재경기판단 CSI(60→69), 향후경기전망CSI(86→105)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CSI(86→99)는 전월과 동일하고 여타 지수에서는 취업기회전망(86→99), 주택가격전망(113→122), 임금수준전망(118→121)은 전월보다 상승, 금리수준전망(91→84), 가계부채전망(99→97)은 전월보다 하락, 가계저축전망(93→93)은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따른 전북지역 소비자 현재생활형편CSI(87→88), 생활형편전망CSI(91→96) 모두 전월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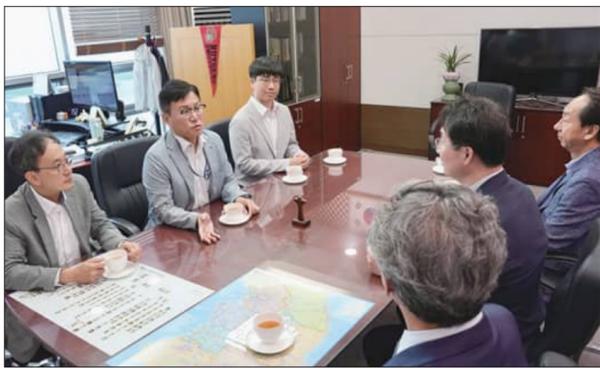
으로 파악됐다. 또 가계수입전망CSI(96→96), 소비자충전감CSI(103→107)는 상승으로 확인됐고 지출향목별로는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등에서 상승했지만 교육비, 의료·보건비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경제상황 인식으로는 현재경기판단 CSI(60→69), 향후경기전망CSI(86→105)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CSI(86→99)는 전월과 동일, 금리수준전망CSI(91→84)는 하락으로 집계됐다. 현재가계저축CSI(90→88)와 가계부채전망CSI(99→97)는 하락했으며, 가계저축전망CSI(93→93), 현재가계부채CSI(101→101) 동일, 물가수준전망CSI(137→132)는 하락, 주택가격전망CSI(113→122), 임금수준전망CSI(118→121) 상승으로 확인됐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개발청 '군산강소특구' 발전 방안 논의

## 특구확대새임주기업 혜택 논의 연구소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을 강화하며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이하 산단)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

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누며 새로 입주하는 강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유관기



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새만금에 입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새만금에 입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자치도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지원' 공식 요청

## 환경부에 제도 신설 강력 건의 도민 석면 노출 신속철거 절실

전북자치도가 석면건축물 철거 위한 국비지원 제도화를 공식 요청하며, 도민의 건강권 보호 정책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석면건축물 전면 철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더불어 도는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건의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공돼 여전히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석면 건축물은 비산 가능성이 높고 인체 유해성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신속한 철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지역 석면건축물은 891개소로, 그 중 공공건축물 513개소, 대학교 234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도 시책사업을 통해 2023년 9억 7천만 원(37개소), 2024년 4억 7천만

원(17개소), 2025년 2억 5천만 원(11개소) 등 3년 동안 16억 원 상당을 투입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철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시설까지 포괄하는 철거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험성 평가, 석면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차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준의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제도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병행해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JB문화공간, '제2의백남준' 이이남 작가 토크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배종일) JB문화공간에서 24일 이이남 미디어아트 거장 작가와 함께 하는 '작가토크쇼'를 개최했다. 이이남 작가는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전 회화를 현대적 시각과 동시대의 이슈, 대중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미술의 시간, 거장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

이이남 작가는 최근 개인전으로 주목받은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폴로세움 파사드' 작업, '광주 ACC' 전시 등 주요 작품 활동을 영상으로 축약해 선보였다. 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설치된 병풍 작업 등 대표작에 대한 소개와 비디오 아트와 미디어 아트의 차이점, 영감의 원천, 그리고 향후 작업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나노섬유 의료기기 상용화 나선다

중재연구센터, 3년간 연구 나노섬유형 지혈소재 등 개발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센터(센터장 박찬희)가 도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생체적합성 소재 및 제조혁신 의료디바이스 개발' 과제로, 센터는 향후 3년간 나노섬유 지혈소재 및 휴대용 전기방사 의료기기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응급 의료 현장에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노섬유 기반의 지혈소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센터가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재와 이를 환부에 직접 방사할 수 있는 휴대형 전기방사 디바이스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1일 연구에 참여하는 컨

소기업 구성원들과 함께 킥오프 미팅을 통해 제품 기술 구현 가능성, 임상 현장 적용성, 생물학적 안전성 및 전기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연구센터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고분자 생체재료의 나노섬유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독보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서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한 4등급 흡수성 뇌경막 대용제 제품을 식약처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한 경험이 있어 이번 나노섬유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기기 상용화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 전북의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전략사업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전주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인재양성 제3기 수료식

연수생 8명 수료증 수여

전주인재육성재단(공동이사장 이병호 수병원 원장·우범기 전주시장은)은 24일 재단 사무실(청년이음전주 5층)에서 제3기(2025-17)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강화사업의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3기 연수생 8명의 개인 활동 보고서 발표와 수료증 수여,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3기 연수생들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어학 집중코스과 자체평가, 우리 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국내 연수(5개월) △글로벌기업 및 대학 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국외연수(2주)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2주)의 일정을 거처왔다.

한 연수생은 이날 보고서 발표를 통해 "영어능력강화사업에 참여해 영어 실력이 향상된 만큼 자신감도 많이 커졌다"면서 "무엇보다 2주간

의 해외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영어 능력 강화사업은 기존 해외연수와는 달리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한 후 향상된 언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단기 해외연수로 구성했다"면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조적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어능력 강화사업에 3기로 참여해 수료한 8명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영어능력강화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연수(5개월) △글로벌기업 및 대학 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국외연수(2주)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2주)의 일정을 거처왔다.

한 연수생은 이날 보고서 발표를 통해 "영어능력강화사업에 참여해 영어 실력이 향상된 만큼 자신감도 많이 커졌다"면서 "무엇보다 2주간

/정재근 기자

# 전북교육청, 26년도 교육 예산편성 도민 의견 듣는다

25~8월 22일 의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산편성 의견 접수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

혔다. 예산편성 의견서 제출분야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 전반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선정 특혜 논란 등을 없애고자 지난해부터 대상 및 심사 기준을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으로 명확화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비롯해 전북도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며, 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의견제안) 또는 우편·FAX·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신설했다.

설문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로 가장 필요

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교육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2025 부안교육 정책 포럼

부안교육 현안·교육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부안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함께 '2025 부안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과함께자문위원회와 부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 포럼은 부안교육 현안과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명이 참석해 교육발전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는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농촌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미래세대 인재의 핵심요건'을 주제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학교-지역사회 연계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1부 패널토론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교육과정 지원사업(부안교육청 오명연 장학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부안군청 최정애 과장) △시속가능한 학교 교육 방안(계회중 김명희 교사) 등을 주제로 부안교육의 현안을 논의했다.

2부 토론에서는 △올바른 진로진학 대안 모색(백산고 강성길 운영위원장) △세대와 마을을 잇는 글로벌 인재 육성(청자골 사회적 협동조합 박연미 대표) △공공체 회복과 교육(부안청년정책협의체 유수정 위원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민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렉처콘서트' 참가자 모집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 30명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오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2025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를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는 지역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와 음악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그 문화적 배경과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세계 음악을 매개로 문화 간 공감과 소통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리축제의 다른 한 축인 '월드뮤직'을 더욱 널리 알리고, 8월에 개최되는 본 축제에 앞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축제를 미리 느껴보는 장으로 마련된다.

특히 연주자와 해설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세계 음악의 역사와 악기, 문화를 함께 풀어내는 '렉처콘서트(Lecture Concert)'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난해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인 '하안양옥집(하양집)'에서 열리는 한옥들 사이에 있는 풍광 좋은 이층 양옥집의 실내 공간과 세계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함을 느껴볼 수 있겠다.

공연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및 사전 예약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탭의 사전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30명씩 모집한다. /김영태 기자

## 군산부설초, 소통·협력 위한 '학교 공개의 날' 성료

수업 공개·바자회 운영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가 지난 20일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공개의 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복한 교육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매년 열리는 '학교 공개의 날' 행사는 전 학급 수업 공개와 바자회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단체인 교육발전회의 주도로 진행된 바자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판매 및 놀이활동을 즐기

며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고 특히 공개 수업에는 전체 학부모 90% 이상이 참가하여 높은 교육참여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신철 교장은 "경제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련해 명품 군산부설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지진호우 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끄러짐 주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뒷사람 주의**  
우산을 입을 때 뒷사람을 주의해 주세요.



**외출 자제**  
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기상 정보 확인**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하세요.



### 익산시, 정신건강 업무실무자 전문가 초빙 역량 강화 나서

익산시가 정신건강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 지역 정신건강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찬모)와 함께 24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트라우마, 기억을 걷는 시간'을 주제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과 심리적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 "흙에서 마음을 치유하다" 정읍시, 원예기반 치유농업 운영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을 돌보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정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농업 기술 산학협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응동면 매당마을에 위치한 치유농장에서 지난 5월 29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 10회기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우울 고위험군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씨 뿌리기, 물 주기, 수확 등의 원예활동을 중심으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의 생장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우울감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전략을 연계한 활동도 병행돼 스트레스 인지도 감소와 부정적 사고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학생들 학습 동기 부여 '공부의 명수' 프로야구 관람 제공

군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에게 색다른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시는 공교육학 플랫폼 '공부의 명수'의 학습질문방을 적극 활용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1일까지 운영되며, '공부의 명수' 내 학습질문방을 가장 활발히 이용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생 중 30명을 선정해 프로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질문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과목별로는 수학은 매일, 영어와 프리토킹은 월·수·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8일 '공부의 명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학생들은 8월 19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공부의 명수"가 군산 학생들의 든든한 학습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소아의료 24시간 체계 가동

### 서남권 어린이전용병동 개소 공공의료 강화로 공백 해소

이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정읍에서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가 서남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첫발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24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 박상훈 정읍경찰서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시설은 정읍아산병원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소아청소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아외래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과 휴일



정읍시는 24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정읍시>

에도 전문의 당직 체계와 응급실 연계를 통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설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 시간대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현했다.

더불어 광주·전주 등 타지역 진출을 방지하고 고창, 부안 등 서남권 진료권의 중심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소

멸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은 단순한 진료 시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의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수변도시, 새만금 배후도시로"

### 제270회 익산시의회 시정답변

익산시가 조성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중심축이자 전북권 대표 거점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광자원과 교통망, 정주 환경을 아우르는 도시구상에 민간 투자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270회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충영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수변도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검토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개발 여건도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새만금과 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육로와 수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직선도로 건설을 제안했고, 만경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용역은 진행중"이라며 "2027년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소형 유람선을 통해 새만금-익산 간 수로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새만금신항-춘포 구간 만경강 뱃길 복원을 통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주요 역사 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전북권 통합 관광코스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또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한

발 앞서 개발 기반 여건을 착실히 마련해왔다"며 "수변도시 사업은 산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7개 지자체에 혁신행정 비결 전수

### 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 선정 '서무실록'·'정책반올림' 등

군산시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열고, '서무실록', '정책 반올림' 등 군산시의 주요 혁신행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타 지자체에 확산하고 기관 간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2024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참여했다.

멘토링은 지난 16일과 23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회차에는 광주 동구, 서천군, 담양군, 영광군, 2회차에는 울산 중구, 함평군, 예천군이 멘토 기관으로 참여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군산시는 △서무 업무편람 누리집 '서무실록' △저 연차 공무원 중심의 시정혁신 모임 '정책 반올림' △기관장과 실무자 간 소통 프로그램 '당나귀(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시타군 산(시장님과 티타임)'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생각을 키우는 아침 창'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정책 반올림'의 정책경연대회와 조직문화 개선 사례(정찬 달리버리, 점심 문화 개선 캠페인)는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침 창'의 기획 의도와 운영 방식 역시 멘토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기존의 혁신 프로그램에 더해, 하반기에도 조직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장애인 개인예산제...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중간감의회 이용자 만족도 높아

익산시가 장애인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맞춤형 복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사자 중심 복지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직접 설

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익산시장에이중합복지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도를 실제로 이용 중인 장애

인이 직접 참여해 실생활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며 만족감을 전했다. 또한 제공기관 실무자들도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다. 장애인 배우자 이용자 중 37명을 선정해 개인별 배우자 지급액의 20%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후루룩' 미식여행 안내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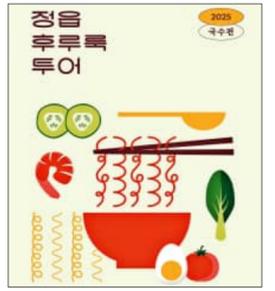
### 면요리·디저트·산책까지

국수 한 그릇에 정읍의 맛과 멋을 담았다. 정읍시가 관광객을 위한 면요리 테마 미식 안내서 '정읍 후루룩 투어'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 후루룩 투어-국수편'(이하 후루룩)은 정읍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지역의 면요리 맛집을 소개하고, 여행 동선을 따라 미식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안내 책자다.

특히 정읍역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식당들을 중심으로 대표 메뉴와 매장 특징, 방문 팁 등 알찬 정보를 담았다. 국수라는 친숙한 메뉴에 지역의 정취와 이야기를 더해, 소소하지만 특별한 여행을 제안한다.

부록에는 '국수 든든히 먹고 걸 어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장산과 주변 관광지 정보를 수록해, 식도락과 산책을 연계한 코스로 구성했다. 내장산 관광특구 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면요리와



함께, 이원일 셰프가 개발한 '버섯 돈육칼'도 소개돼 눈길을 끈다.

또한 책자 뒷부분에는 '정읍 디지털 카페 10선'이 부록으로 포함됐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카페부터 문화 감성이 흐르는 공간, 개성 넘치는 이색 카페까지 엄선해 여행의 마무리까지 책임진다.

'후루룩'은 정읍역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정읍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시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펼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3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정상철 의원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관련 시민들의 철회 요구에 대한 정읍시의 공식적인 입장 △일방적 사업 강행시 정읍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했고, 이도형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현황과 고령친화주택 지원 사업 검토 △샘골보건소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 과정과 재활운동실 이용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이상길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정읍시의 대책과 정주 및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의 내용 변경 증가에 따른 근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민선 8기 시

정 운영에 따른 대표적인 성과와 부족한 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읍 지역 공약사항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고, 송기순 의원은 △신태인읍의 다양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목욕탕 시설 확충 △정읍면과 신태인읍을 잇는 정읍교의 보행자 통행을 위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서항경 의원은 △보행 약자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실태조사와 설치 확대 계획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계획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선미 의원은 △관내 주요 약취 발생 분포현황과 발생 시설에 대한 약취 개선 지원사업 현황 △약취 단속 및 지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약취저감 중장기 대책을 질문하며 마무리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의회, 1조 9,089억 1차 추경예산 의결

###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안방문과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장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1조 9,08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김경진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익산시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앞

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재구 의원 - 동산동·마동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완화를 위한 동산동 도로 연장선 개설 촉구 △손진영 의원 - 익산시 먹거리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시켜야 △강경숙 의원 -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 익산 농촌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신용 의원 - 익산 문화유적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관리 개선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가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선정된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급해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사업이다.

특히 이용자가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어발달, 초기 인지 발달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초중 돌봄서비스 등 15개이다.

이용자 모집 인원은 총 1,000여 명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김제시, 상공회의소 단독설립

## 민선 8기 경제 정책 결실 24일 개소식 발전 전환점 지역 경제 자생력 기대

김윤권 김제상공회의소 초대회장은 "지역 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김제 상공업 발전을 선도하고, 시와 긴밀히 협력해 김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단독설립, 민선 8기 경제 정책의 결실

△동안 전북서남상공회의소에 의존해 있던 관내 상공인들은 독립된 경제단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에 김제시는 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설립 기반 조성과 행정절차 이행, 관련법 개정 요구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예정보다 앞선 시기에 김제상공회의소가 문을 열게 됐으며, 이는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속한 운영 시작을 위해 설립 절차 이행에 속도 올려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전북서남상공회의소에 '김제시 분할설립 안건'을 상정했으나, 2년 연속 부결됐다. 이에, 김제시는 2023년부터 매 분기마다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이어 나간 끝에 2024년 9월, '김제시 분할설립

안건'이 가결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상공회의소, 앞으로의 역할

상공회의소 단독설립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에 이어 김제가 4번째로써, 김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위상 확립에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상공회의소 회원자격과 주요 혜택

김제상공회의소는 법적 경제단체로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사업자, 법인기업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상공회의소 개소를 계기로 지역 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화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 김제상공회의소 개소가 시와 상공인이 함께 만들어갈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김제상공회의소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4일, 지평선북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에서 김제상공회의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김제시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제상공회의소는 단순한 조직의 출범을 넘어, 우리 지역 상공업계가 자생의 기반을 다지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김제상공회의소 단독설립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개소식 현장 지역경제 주역들의 축하와 기대

이번 개소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도·시의원 등 200여명의 지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김제형 신중년 리스타트' 참여자 모집

### 40~60세 대상 재취업 활성화...7월 18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4일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신중년층(40~60세)을 대상으로, 재취업 활성화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김제형 신중년 리스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신규 취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장기재직자 휴가비 지원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신규 취업자 인센티브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신중년에게 5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매월 3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기

재직자 휴가비 지원은 동일 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신중년에게 1회에 한해 30만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한달 간, 김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김제시 동서로 173, 지평선북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3층)에서 방문 접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 또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중년 세대가 지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용기종기문화센터 내달 1~7일까지 수강생 모집

부안군 용기종기문화센터에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킷&자수, 생활요리, 떡볶이, 케이크, 캘리그라피&먹그림수성화, 중국어, 영어, 하모니카, 우쿨렐레, 타로심리상담사, 노래교실, 보테니컬아트, 차문화, 컴퓨터 기초, 컴퓨터활용, 스마트폰활용, 에어로빅&조바댄스, 라인댄스, 필라테스, 시니어모델링, 창작무용으로 21개과목 27개반이며, 운영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다.

부안군민이라면 부안군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 용기종기문화센터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본인), 한부모 가정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기종기 문화센터 관계자는 "군민들의 풍요롭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 회의 개최

### 전년도 성과·올해 현황 공유

부안군은 지난 6월 23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안군 청소년안전망 상반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단, 부안고송센터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4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성과 및 25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3명을 선정·심의해 지원 대상자

를 확정했다.

선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업지원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 관계자는 "2025년 상반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내년도 이동장터 시범사업 선정

## 사업비 1억5천만원 확보 '식품사막' 해소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모한 '2026년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운영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 이른바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 주체를 선정했

다. 김제시는 오는 2026년부터 식품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직접 공급하는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식품사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석)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행복이동점방'을 총 6회 운영하며, 주민들과의 소통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사업 준비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동장터와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 및 사업 발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민·관이 함께 지역의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동장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

## 특별조정교부금 4억 투입 9홀 조성 주민 건강 증진

고창군이 지난 23일 오후 성송면 관정리 일원에서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었다.

'성송면 파크골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기존 성송 체육회관 앞 잔디광장을 활용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으로 고창군 파크골프장은 모두 4곳으로 늘게 됐다.

다음달 공음면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18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



에는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27홀)과 운곡 파크골프장(18홀) 등이 준비중이다. 2027년에는 북부권(흥덕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파크골프는 세대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

는 건강한 소통의 스포츠다"며 "성송파크골프장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건강과 활력을 함께 나누는 고창의 대표 생활체육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기초생활신규수급자 30명 발굴

##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복지서비스 대상자 추가

고창군이 기초수급자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수급자 30명을 찾아내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사를 통해 총 2445세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143건 중 30건의 신규 수급자를 찾았고, 893세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했다.

군은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해 가구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요구 감면, 정부양곡 지원 등 즉시 지원이 가능한 98세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완료했다. 주거·생

활·의료 등의 서비스 수요가 확인된 419세대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한 촘촘한 조사 덕분에 도움이 절실한 군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외국인 유학생 농촌 일손돕기

부안군은 지난 23일 청호수 마을에서 외국인 유학생 40여명이 농촌 일손돕기 봉사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농가를 돕기 위해 모였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참여해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동안 농촌 일손 돕기와 생활 체험을 병행하는 '농활' 프로그램이다.

유학생들은 논밭에서 직접 마늘 캐기, 감자 선별 등의 작업을 하며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전통놀이,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 생활 체험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주민 유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메가 버블쇼' 영유아 3백여명 호응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메가 버블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약 300명의 영유아가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메가 버블쇼'는 비눗방울을 활용한 대형 퍼포먼스 공연으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공연 중간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 끌었으며, 아이들은 자선단체 무대와 어우러지며 공연을 더욱 즐겁게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적 경험의 장이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은 문화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영유아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남원시-하림, 역세권 개발 협력 '물꼬'

### 투자선도지구 MOU 체결 지역 식자재 활용 협력 강화 일자리·민간투자 창출 기대

남원시는 24일, ㈜하림과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의 구체화와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림은 남원시의 투자선도지구 조성 방향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푸드서비스(FS) 및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남원 스마트팜 및 지



남원시는 24일, ㈜하림과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역 농산물의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남원시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상호 인력과 관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역 식자재 활용 확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가능성이 기대된다.

남원시는 현재 KTX와 달빛철도가 교차하는 남원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

주거 기능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팜, 물류, 식자재 등 지역 특화 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연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집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리산권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향후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귀농귀촌 1번지 완주,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양재aT센터 국민팜엑스포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홍보 유공

'귀농귀촌 1번지' 완주군이 귀농귀촌 우수지자체로 꼽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2일 까지 서울 양재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린 '2025 국민팜 엑스포'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 홍보 유공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2025 국민팜 엑스포'는 '새로운 여정,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귀농귀

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일보가 주최한 행사로, 전국 지자체 귀농귀촌 정보와 미래 농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박람회 기간동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하는 코너를 만들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 선도도시 완주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완주군, 내달 10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연이율 2.0%,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북 귀농귀촌 1만 7,417가구 중 약 37%를 차지하며 전북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 '경천·양지천의 기적' 다슬기가 증명했다

### 경천 다슬기 서식 확인 수변 개발 속 생태 회복 입증

순창군 대표 하천인 경천에 최근 다슬기 서식이 확인되면서,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이 생태 회복의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다슬기는 수질이 맑고 오염이 적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경천의 수질과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변화는 하천 종합 개발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이 개선된 사례로, 단 순한 정비만 넘어 군민 삶의 질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경천과 인근 양지천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 준설, 지장물 제거, 하천변 정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



순창 '대표 하천' 경천에 최근 다슬기 서식이 확인되며 군의 수변 개발사업이 생태 회복의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사진=순창군>

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수질 개선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의 생태적 효과를 입증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 군은 지난 해 양지천에 꽃잔디와 수선화, 튜립 70만 본을 조성한 데 이어, 울

해는 경천에 꽃잔디, 수선화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관광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생태하천 조성으로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 도자·울칠관 건립 등 건의 드론·경찰수련원 사업 설명

최경식 남원시장은 2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역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사업별 현상 상황과 필요성을 상세히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남원 현대울칠관공예관 건립(152억원) 등 우리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

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찾아서는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국토부, 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국토부, 43억원) ▲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센터 건립(농식품부, 98억원)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경찰청, 442억원)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환경부, 15억원) 등 남원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각 부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주민 손으로 만든 '완주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

### 7월 5-6일 대야천 계곡서 축제 캐릭터 '동상이' 등장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완주군 동상면의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야천 계곡(동상면 대야수목로 379-4)에서 열린다.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는 지역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지난 2023년 시작됐으며, 첫해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1·2회에는 윤장산 계곡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주민 공청회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대야천 계곡으로 새

롭게 장소를 선정했다.

이번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는 물소리 등 자연미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롭게 구성된다.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수영장과 슬라이더는 물론 물난타, 버블쇼, 물 관련 게임 등이 준비돼 아이나 어른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탄생시킨 축제 캐릭터 '동상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20년 만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 연구용역 결과 바탕 현실화 적자 지속에 재정 확보 모색

완주군이 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수영장, 축구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이번 개정은 2004-2006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여 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시행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군은 그동안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체육시설의 운영수지율은 약 23%에

불과해 적자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영장은 성인 일반 요금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이용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테니스장의 경우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용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주말 경기 요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축구장과 야구장 조명 사용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개인 일반이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평일 전용 사용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에는 아동 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방향도 반영됐다. 김재천 완주군 의회 부의장의 의원 발의로 추진된 개정 조항에 따라 어린이체육관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일반 이용 시 사용료가 전면 무료화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무분별한 인상이 아닌 현실에 맞는 단계적 조정"이라며 "군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감면제도도 병행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소프트테니스 글로벌 대회 연다

### 24일 오픈 종합대회 개막 9개국 250명 참가 '열전'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 중인 순창군이 국제 소프트테니스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2025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

회가 개최된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 등 총 9개국에서 250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인 '오픈'

형식으로 진행돼 국내에서는 국가대표팀, 실업팀, 대학팀, 고등학교팀까지 다양한 소속의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대회가 순창의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11개 읍면 순회 어르신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복지 행보에 나섰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늘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지역 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예방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순창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북촌면을 시작으로 순창읍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 읍·면의 체육관과 복지센터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론 강의와 함께 치매 예방 체조 시연을 병행하는 참여형 교육 방식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배우고 질문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군,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박차

임실군이 고추 재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3년의 연구 기간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전략작목(고추)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2년째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차 차등 시용을 통해 노지 고추의 적정 양수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저감 및 토양 개선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연구에서는 수동 관수보다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한 자동 관수가 수확량이 높았으며, 바이오차 무처리 및 200kg/10a 대비 400kg/10a 처리 시 수확량과 물리성이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관비량 및 바이오차 시용량을 달리 기술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종합 평가를 통한 저탄소 농업 실현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장취균 소장은 "고온과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수·관비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추 안정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야외활동 'SFTS' 주의 당부

진안군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풀숲이나 야외활동 중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고열·구토·설사·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고령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진안군에서는 최근 텃밭 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군민 1명이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진안군보건소는 즉각 역학조사와 환자 거주 마을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진드기 기피제와 팔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해 추가 감염 예방에 나섰다.

진안군청 보건소 관계자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와 세탁,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농촌지도자무주군립 한마음대회 성료

'2025년 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지난 24일 무주군 무주읍 소이나루 공원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농촌지도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회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장군 농촌지도자회(회장 정진호) 회원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기차기와 고리 던지기, 윷놀이 등 민속경기를 함께 즐기며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종석 무주군농촌지도자회 회장은 "바쁜 영농철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무주와 기장군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영농현장의 리더이자 지역농업의 중심이 바로 농촌지도자회라는 마음으로 무주와 기장농업 발전에 앞장서 나가자"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한마음대회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어려워진 영농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더 끈끈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촌지도자들이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무주안성 공사 착수 안정·효율적 운영 도모 내년까지 마무리

무주군이 무주읍과 안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증설 사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을 도모하고, 용담댐과 대청댐 상류의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113억 원이 투입되는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하

수처리 용량이 3천 톤이었으나 7백 톤 증설해 하루 총 3천7백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5백 톤 증설해 하루 1천2백 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던 시설에서 총 1천7백 톤까지 처리(1일)할 수 있게 된다.

두 사업 모두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5월까지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박봉열 무주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장은 "이번 증설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처리 구역 내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상수원 수질 개선 효과가 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주군은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쾌적한 음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연 특별시 무주'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심 민 임실군수, 국가예산확보 광폭 홍보

세계명견테마랜드 KTX 임실역 정차 등 건의

심 민 임실군수가 핵심사업인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과 KTX 임실역 정차 등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광폭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6년도 예산안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비 67억1천만원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사업은 설화 및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주인을 구한 '오수의 개'라는 콘텐츠 지원을 활용해, 세계 명견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반려인들의 성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심 민 군수는 "세계명견테마랜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기 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 임실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철도망 체계 개편에 군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 민 군수는 "KTX 임실역 정차는 지역민의 교통 복지 실현은 물론, 주요 국가 시설인 35사단, 호국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천안 관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임실 방문객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파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와 국토부가 요청한 용역 과정 등에서 임실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정지권 협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핵심사업 성과 공유·방향 점검

상반기 결산·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4일 군청 강당에서 실·과·소장 및 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된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후반기기를 맞아 공약, 역점사업, 신규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

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군이 밝힌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진안고원행복주택(백운면) 준공 △청춘아이트리움 및 청년 쉼터하우스 준공 인력공급을 통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또한 진안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목표로 부분별 핵심 전략 과정을 공유하고,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부서 간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진안군은 이제 △진안방문의 해(26~27)준비 △화천지구 복합개발 △월광지

구 도시개발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 △제63회 도민체전 준비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 등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상반기 각 부서의 노력과 협업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진안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누리파크 '밭물놀이장' 내달 1일 개장

군청 홈페이지서 10일 전부터 사전 예약

장수군은 방학·휴가철을 맞아 장수누리파크 내 '어린이 밭물놀이장'을 내달 1일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누리파크 밭물놀이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총 3회 회차별 △1회차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 △2회차 오후 1시부터 2시 40분 △3회차 오후 3시부터 4시 40분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규휴무일이며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군은 안전을 위해 회차별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회차별 관내 50명 관외 100명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요금은 무료로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밭물놀이장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일 기준 10일 전부터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아이들의 천국' 누리파크를 찾아 시원하고 소중한 추억 만들기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여름 휴가철 대비 환경 점검

관광지 등 공공장소 대상

장수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과, 산림과, 관광산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부서가 협력해 실시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수누리파크, 방화동가족휴가촌, 덕산계곡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공원, 하천변, 주요 도로변 등 쓰레기 다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여부 △쓰레기통 설치 및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경미한 사항이 발견

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은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름철 특성상 악취와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주 2회 이상 정기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지·손세정제 등 위생 소모품도 수시로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은 군 이미지와 직결되고 장수를 찾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이며 주민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탄소중립 인식 제고 환경교육

임실군이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KEI 환경정책교육원, 한국환경보전원 교육관리시스템)을 5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4월 제1차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447.7천톤)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탄소중립 실천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군은 학생 대상의 학교 환경교육의 경우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

해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 대상 모집에서 감사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13개 강좌로 구성된 △지자체 기후 적응 역량 강화 △국가·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의 걸음과 우리의 역할 등으로 진행되며, 향후 교육 효과 평가를 통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공공단체 급식 지역 먹거리 확대

판로확보·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이 오는 7월부터 관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단체 급식에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기존 학교급식 중심의 공급체계를 확대해 △진안군청 △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진안군의료원 △진안장학숙 등 5개 공공기관과 △북한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시설까지 총 9개소로 확장했다.

사업 운영은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할 예정이다.

공급 품목은 총 26종으로 양파·감자·당근 등 야채류 14종, 사과·포도·사인머스켓 등 과일류 6종, 두부·계란 등 기타 6종으로 구성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공공 급식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공급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무진 게이트볼대회, 동호인 150여명 참가

제87회 장무진(장수·무주·진안) 게이트볼대회가 장수읍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87회를 맞은 장무진 게이트볼대회는 매년 장수·무주·진안 3개 군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전통 있는 스포츠 교류 행사다.

각 군에서 6팀씩, 총 18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선수와 임원, 응원단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한 열띤 분위기가 속에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내내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응원

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동호인들 간의 끈끈한 유대와 스포츠 정신이 돋보이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최훈식 군수는 개회식에 참석해 "장수·무주·진안의 이웃 동호인들이 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하나되는 모습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세 지역이 스포츠를 매개로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하는 이웃으로서 더욱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전주상진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

전주상진신협(이사장 김현정)은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지난 23일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서 진행했다. 사업실시과정은 전주상진신협이 어부바멘토링 협약을 맺은 꿈사랑지역아동센터(센터장 윤태인)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상진신협 김현정 이사장과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해당가구의 벽지 및 장판교체를 진행했다.

/김영태 기자

## 농어촌공사 '청렴 라이브(Live)' 맞춤형 교육

### "실천이 신뢰" 강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민중)는 2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Live)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교육 정책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이다. 이날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는 "청렴 문화 정착은 관리자 솔

선수범과 직원의 자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청렴 실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한유나 전문 강사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취지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 강사는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또 청렴 연극 등 문화 콘텐츠도 함께 구성해 임직원 집중도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김영태 기자



### 김제시 금구면, 관내 어르신에 '행복한 나눔 실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24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0세대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사업을 추진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어르신들의 기력 보충과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삼계탕 재료 구매하고 전달해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전북농협, 농협인 200여 명 진안군서 농촌일손 지원

### 한마음농촌일손지원의날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북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집중 지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농촌일손 지원의 날은 24일 진안군 정천면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에 접어들며 정천면 일대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협인 200여 명이 참여해 일손 돕기에 땀방울을 적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24

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일손 돕기에는 범농협 임직원, 전북대학교 대학생,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총 800명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일손돕기는 농협을 중심으로 전국적 농촌일손돕기 캠페인 일환이다. 영농철 집중지원을 통한 실질적 영농지원 강화와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김영태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무대 오르는 '운동주, 달을 쏘다'

익산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3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과 운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운동주, 달을 쏘다'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1917~1945)의 삶과 참회록, 서시, 십자가, 자화상 등 아름다운 시를 노래와 춤, 극적인 장면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고 전석 3만 원이며, 관객에게 운동주 시 필사책이 제공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호은 청장, 여름철 대비 고산정수장 현장 점검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4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고산정수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수장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고산정수장은 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시설로 전주·군산·완주 등 전북권 5개 지역에 하루 평균 50만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및 녹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

수처리 공정의 안정성과 비상 대응체계를 중점으로 확인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녹조 및 유충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어 "주민들이 여름철에도 수돗물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군산나은1동지사협, 저소득아동에 여름 신발 지원

군산시 나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중 1년생 저소득 가구 아동 25명에게 총 250만 원 상당의 여름 신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가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추진한 '두발, 날개 달아'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상품권을 전달받은 아동은 지역 매장을 방문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여름신발을 직접 고르고 구입

할 수 있다. 상품권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여름에 신을 신발이 없었는데, 필요한 신발을 직접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삼석 민간위원장은 "올해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작은 우리의 정성으로 아이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문화재단-시니어클럽, '영화보는 날' 행사 개최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종훈)은 군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보는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이웃 간 소통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니어클럽과 함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후 첫 문화행사였던 만큼 통장단, 경로당 어르신, 지역주민 등 약 120여 명이 극장을 가득 매웠다. /군산=지송길 기자

### 무주군자원봉사센터, '행복 밥차' 6개 읍면 순회

무주군 '온정을 나르는 행복 밥차'(이하 행복 밥차)가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초부터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주관하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경옥), 시니어클럽(단장 김도현),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행복 밥차가 운행 중으로 설천면을 시작으로 7월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할 예정이다. '온정을 나르는 행복 밥차 운행'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전북대 총동창회, 6.25 참전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6.25 전쟁 참전국 및 지원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24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캐나다·에티오피아·러시아 출신 유학생 4명을 초청해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나눴다. /최성민 기자

## 장마철 주의사항

1.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2. 비가 많이 내릴 땐 **맨홀 주변**을 조심하세요!

〈一事一言〉



주목되는 실용외교의 진화 '사령탑 역량'이 관건 (2)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성숙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미래 발전, 역내 안정 협의를 협의하기 위해 한·중 외교통상 2+2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여기서는 해상교통로 보장 및 안전 확보, 서해 완충구역 내 어업구조물 철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자체 등을 협의한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 총리가 아닌 중국 주석이 참석하도록 해 현행 경제협력, 환경, 기후, 해상구난 등을 넘어 지역 안전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역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공약에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과 해양주권 수호만 들어있지만,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문제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EEZ에 대한 '형평원칙'과 무해통항권 제한정책, 남중국해 내 '구단선' 강행과 제1, 2도련 전략은 우리 해양주권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중국의 현상변경 정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영·프 및 일본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참가는 신중을 기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캄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

워크'를 창설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해양봉쇄로 인식하고 있어 갈등을 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배타적 해양질서를 포용적 해양질서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일 외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 회의'의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역내 해양안보협력체가 만들어진다면 제주국제평화센터 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방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방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공약에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등 국방 문민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정보기관의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단계별 육사·해사·공사의 통합,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체제로 개편한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국방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걸었다. 2022년 공약의 '임기 내 작전권 환수'가 '전작권 환수 추진'으로 바뀌었지만,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정책에 따라 작전권 환수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환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사전준비만 잘 된다면 내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의 지휘소연습(CPX)에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 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실시해 내년 12월 1일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만약 조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한미연합사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폐지하고, 합동군을 창설해 평시·전시로 나뉘어 있는 작전통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합참이 인사·군수·병참을 맡는 방향으로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 한미연합사의 출범에 맞춰 유엔사와의 지휘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유엔사가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전이라도 유엔사의 권한을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적 조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내 한국군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철회를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약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과 '9.19군사합의'의 복원을 내걸었다. 신정부에 들어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하고, 국방부도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를 위해 '9.19군사합의'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2년 12월 북한군 드론의 서울, 강화도 일대 침범 사례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전 양상, 그리고 남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 등 변화된 군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대북 공약에서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대목이다. 남북관계의 조기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에 앞서 북한이 기존의 '1국가 2지향의 특수관계'를 부정하며 내놓은 '적대적 2국가관계'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특대'를 통해 자유의 복원을 내세움으로써 이를 명백히 거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적대'를 제거한 2국가관계의 수용을 주장했다가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인재의 약진, 고향발전의 교두보 되길

이재명 정부 첫 개각이 단행되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속속 지명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김제), 정동영(순창), 안규백 의원(고창) 등이 각각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며 외교·안보·국방이라는 국가안보 3축의 중책에 동시에 포진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전북의 인재들이 드디어 중앙정부의 전면 복귀하게 된 것만으로도 도민들로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이 앞으로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인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지 출신 지역의 대표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와 국정철학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양자·다자 외교, 통상 협상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교교통으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을 높일 책임자로 평가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열쇠를 쥐고 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년 의원 시절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며 민간 통제라는 문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로 꼽힌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출신 국방수장이 탄생하는 상징성도 얻었다. 중앙정부 내 전북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곧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의미한다. 오랜기간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전북

은 예산·인프라·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핵심 라인에 포진한 고향출신 인사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나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열악한 산업구조, 낮은 청년 실업률, 농촌 고령화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북에 대한 중앙의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 내 인사들이 전북의 어려움과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예산과 정책 조정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북도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외교, 통일, 국방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만이 아니다.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안고 있으며, 한반도 서해안의 전략적 거점이기도 하다. 외교부의 북방경제 협력, 통일부의 남북교류 재개, 국방부의 국방산업 육성은 모두 전북과 직결된 과제들이다. 이 같은 과제를 지역발전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해당 부처 수장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단순히 분부 중심의 관료주의에 갇히지 않고, 지역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과감한 정책 집행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들이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출신지의 이름값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분명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며 전북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향 사랑이고 공직자로서의 책무이다. 중앙무대에 선 전북 인재들이 '고향에 뿌리를 둔 국정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당부한다.

**문화재 열전**

**순창 삼인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유적건조물, 인물기념
- 지정일- 1973년 6월 23일
- 시대- 조선시대
- 소재지-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27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3015-479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비 오는 날의 시 / 문병란

비 오는 날 비로소 나는 구두가 새는 것을 알았다	현 구두가 되어 있었구나 무뎠던 내 발가락 사이 술술 풍기는 고린내를 기억하는가	쉽게 바꾸고 쉽게 버리는 우리들의 인정
곳은 땅 더러운 땅 아무 데나 밟고 다니면서 고마운 줄 몰랐던 구두	구두야, 이젠 비 오면 물이 새는 현 구두야, 수많은 길을 걸어 나의 모진 발바닥 밑에서 너의 여린 살가죽은 닳고 닳았지	나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네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날 나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현 구두야!
너는 어느덧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동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죽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유태석' 동인으로 활동했다. 시집으로 '문병란시집'과 '죽순밭에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저 미치게 푸른 하늘' 등을 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BT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웃는 도시 만들겠다” 군산시, 구석구석 골목상권 살리기 “함께 해요”

올해 사업비 807억 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  
나운상가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 지정  
군산사랑상품권 발행·배달의명수 활성화

군산시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07억 원을 투입,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비상계엄으로 소비 위축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다.

특히 올해 소비 촉진과 경영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쳐기로 했다.

이와 관련되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배달의명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 등의 사업 등이 펼쳐질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이란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가속화 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은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현재 골목형상점가 5개소(나운상가, 디오션시티G플레이스, 동백로나운상가, 미장상가, 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시는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율이 높은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상권 발굴에 힘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시장에 밀려나는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지원을 더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배달의명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4,1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3,185억 원 대비 93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과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0%를 적립금 환급(캐시백)하는 행사를 통해 상품권 사용 확대를 독려 중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인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활성화도 나섰.

지난 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만 원 이상 결제 3회 시 1만 원 쿠폰 제공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23일부터는 ‘2만 원 이상 결제 2회 시 1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은 또 있다. 2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주인공이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금융기관이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자부담 17% 초과 이자에 대해 최대 3% 지원했던 전년보다 훨씬 높아진 5% 지원으로 상향했다. 반응도 뜨거워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678건, 248억 정도의 대출이 실행됐다.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으로 처음 시행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도 순항하며, 현재

까지 업체당 30만 원씩 3,444업체에 약 10억 정도 지급됐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작년 30만 원보다 높아진 50만 원 지원으로 현재 5,630업체에 약 14억 정도가 나간 상황이다.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부담완화에 도움을 주며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작지만 체감되는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시민은 “예전에는 은누리상품권이 할인율이 높아도 전통시장에서만 써야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집 주변의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이 살리고 가게 부담도 덜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 정부의 민생경제회복에 따른 정부 정책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